

## ‘사랑을 전달하는 기업’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 사회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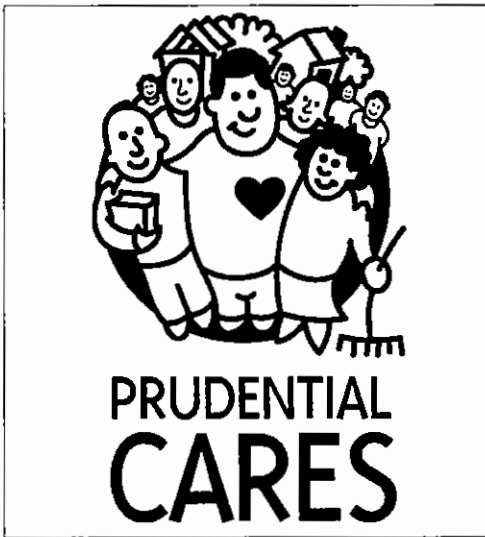
### 푸르덴셜의 창업 이념, ‘가족 사랑, 인간 사랑’

푸르덴셜생명은 1875년 미국에서 경제 공황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Prudential Friendly Society’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생활과 엄청나게 높은 사

망률. 그러나 당시의 생명보험은 워낙 고액이어서 극소수 상류 사회의 전유물이었다. 이 때, 푸르덴셜 창립자인 존 F. 드리아든은 “사회적 기반이 되는 가족사랑과 인간사랑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창업 이념하에 간이보험제도를 도입, 판매했으며 푸르덴셜의 최초의 보험료는 ‘3 Cents per Week’, 즉 1 주일에 고작 3센트였다.

사회적 필요와 그 숭고한 창업 이념으로 인하여 푸르덴셜은 곧 미국 국민의 압도적 사랑 속에 성장할 수 있었고, 푸르덴셜의 상징인 지브롤터의 바위는 회사의 발전과 함께 미국인들에게 신뢰와 안심의 상징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 후 푸르덴셜은 생명보험회사로 성장을 거듭하였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종합 금융 서비스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창업 이념은 푸르덴셜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푸르덴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업문화가 바로 ‘자원봉사’이다.



▲ 푸르덴셜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을  
기획, 장려하는 프로그램

Prudential CARES(Prudential  
Community Action Renewal Efforts)

## 자원봉사를 통한 푸르덴셜의 사회 기여 사례

### 1.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The Prudential Spirit of Community Awards)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는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모범 중·고등학생들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4만5천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 수상자 수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이 대회는 푸르덴셜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공동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시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02년 제 4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친선대상 및 금상 수상자 12명

#### ◆ 시상과 격려를 통한 미래의 지도자 육성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인성함양의 학습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활동결과를 알아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본 대회의 시상프로그램은 시상식 및 사례 공유의 장을 통해 각 지역의 우수 수상자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얻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푸르덴셜생명명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Follow-up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시상식 이후, 매년 1월에는 '푸르덴셜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Prudential Youth Leadership Workshop) 을 개최해 수상자 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원봉사 활동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리더의 역할에 대해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이자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 확대

자원봉사라고 하면 흔히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복지기관에서 노력봉사를 하는 것이 전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문제점이나 요구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이 해당되며 환경, 문화, 사회 계몽 등 그 영역은 무한하다.

본 대회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 학생 발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상 사례는 수상 사례집과 비디오 영상물로 제작하여 매년 전국 학교에 무료로 배포되어 각 학교 자원봉사 담당교사들이 자원봉사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 이희호 전 영부인의 격려 다과회에 참석한 1999년 1회 수상자들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 영역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 ◆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본래 이 대회는 미국 푸르덴셜에서 1995년부터 시작된 사회 기여 프로그램으로 현재 일본,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인 청소년 시상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본 대회는 수

상자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선정된 친선대사상 수상자는 매년 5월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3박 4일간 열리는 미국 푸르덴셜 중·고등학생 자원봉사대회에 친선대사로 참가해 각국의 수상자들과 봉사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보다 자원봉사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 ◆ 서류, 면접 등 3단계의 엄정한 심사

수상자는 중앙예비심사, 16개 시도 지역심사, 중앙심사 등 3단계의 엄정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다. 1차 중앙예비심사에서는 모든 응모신청서를 전국 공통으로 심사하여 지역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심사에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면접을 통하여 학생들의 면면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지역심사는 각 지역의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만나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도 활성화되고 있어 지역심사 후 모임을 갖는 등 청소년들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다.



▲ 2002년 5월, 미국 푸르덴셜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한 한국(앞줄), 일본, 대만 친선대사들

#### ◆ 푸르덴셜 전 임직원이 학교 방문에 참여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는 푸르덴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대회 응모 마감 전 한 달은 '학교 방문의 달'로 제정되는데, 이는 모범 중·고생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해 푸르덴셜의 모든 임직원이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 방문은 모두 푸르덴셜 임직원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는 학교 방문 역시 푸르덴셜의 대표적인 기업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 2. 글로벌 볼런티어 데이(Global Volunteer Day)

자원봉사를 통한 또다른 푸르덴셜의 사회 기여 프로그램으로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푸르덴셜 글로벌 볼런티어 데이 (Prudential Global Volunteer Day)를 들 수 있다. 이 행사는 전세계 푸르덴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푸르덴셜의 임직원이 생활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기여 노력의 하나이다.



이 행사는 회사 주도가 아닌 직원 주도의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봉사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트너 기관을 찾아내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1995년 10월 28일에 처음 실시된 글로벌 볼런티어 데이는 5천여 명의 전세계 임직원이 하룻동안 100여 가지의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재 20여 개국 562개 도시에서 푸르덴셜 임직원, 가족, 고객, 동료 등을 포함해 4만여 명이 837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10월 5일 하룻동안 1973명의 임직원이 49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270시간의 봉사 활동을 벌였다.

## 3. 커뮤니티 챔피언상 (Community Champions Awards)

커뮤니티 챔피언상은 자원봉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전세계 푸르덴셜 임직원(퇴직자 포함)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상이다. 이 상의 참가자격은 1회성의 단발적인 봉사자가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이상 매월 4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임직원만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별, 팀별로 다양한 시상 분야에 따라 상금이 주어지는데, 시상금은 수상자가 아니고 수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 기부되는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챔피언상은 임직원에게는 격려를, 지역사회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푸르덴셜 시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